

# 최근 가금인플루엔자가 가져온 피해의 실상과 언론의 역할

홍보부

‘가금인플루엔자’가 지난해 12월 10일 처음 발병된 이후 2달이 다 되어간다. 그동안 언론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자극적인 멘트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성 기사들로 소비자들에게 혐오감과 불안감을 조성, 결국 닭고기·오리고기 소비 기피현상을 갖게 하였다.

언론에서는 아직까지도 가금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도를 멈추고 않고 있는 실정이다. 뒤늦게나마 TV나 라디오 등 대중매체에서 ‘닭고기는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차 떠난 후에 손 흔드는 격이다.

최근 가금인플루엔자가 가져온 피해의 실상은 어떠하며, 과연 언론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인가?

## “韓·日간 같은 가금인플루엔자에 한국산 닭고기만 못먹는다?”

▣ 가금인플루엔자는 살아있는 조류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이지, 닭고기 섭취를 통해서 감염되지 않음.

-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닭고기를 섭취하고 가금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례가 없고
- 베트남, 태국 등 그동안 문제 국가에서의 감염사례는 모두 살아있는 조류로부터 감염되었음.
- 국내에서 가금인플루엔자 발병 이후 농장 관리자, 살처분 작업자 등 가금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조류와 직접 접촉한 사람(연인원 1,594명)에 대하여 그동안 방역당국에서 세심한 관찰을 한 결과 아직까지 한 건의 감염사례도 없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살아있는 조류에 의한 감염도 없으며, 특히 닭고기 섭취에 의한 가금인플루엔자 가능성은 전무한 상황에서 언론의 과장, 과잉보도로 심각한 닭고기 소비위축이 발생한 실정으로 가금인플루엔자는 살아있는 조류와 관련이 있지, 닭고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 필요

▣ 국산 닭고기 100%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동남아 국가와 사육, 가공, 유통과정 전혀 달라”

“한국은 일본에 앞서 닭 가공공장에 대한 HACCP를 완성한 세계적인 선진 방역국가”

- 전문 양계농장에서 생산한 닭을 가공공장에서 위생적으로 처리한 다음 수의사가 전량 검사하여 합격한 도계품만을 시장에 유통
- 특히 사육과정에서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닭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량 구매하여 매립 처리하는 2중의 완벽한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산 닭고기는 100% 안심하고 먹어도 됨.
- 한국은 이번 가금인플루엔자 발병 즉시 공포하고, 감염된 계군을 100% 살처분하는 등 신속한 초동 진압에 나서 성공한 모범사례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은폐하기에 급급한 일부 동남아 국가들과는 전혀 다름.
- 반면 동남아 가금인플루엔자 발생국의 경우 우리와 달리 대부분 20~30마리 수준의 가정사육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닭과 사람이 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살아있는 닭으로 유통이 되는 등 전 근대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나라의 경우 질병 발

생시 국가 방역이 사실상 불가능한 체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체계임.

- 이처럼 우리나라와는 전적으로 사정이 다른 동남아국가들의 극단적인 피해장면을 연일 여과없이 보도함으로써 언론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 국산 닭고기까지도 문제가 있다는 오해를 갖게 되어 소비를 기피하는 부작용 발생

▣ 언론, 외국의 예를 여과없이 보도

“마치 감염은 식탁의 닭고기에서 되는 것으로 오해케한 한국 언론”

- 가금인플루엔자 감염이 막연하게 ‘닭과 오리로부터’ 라는 단어를 구사하여 보도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닭고기를 먹어서는 안되는 것처럼 오해를 갖도록 하여 심각한 소비위축 야기
  - 12월 국내에서 가금인플루엔자 발병 직후 소비가 감소하다 1월 중순이후 회복되는 상황이었으나 베트남, 태국에서 감염된 닭고기를 먹고 사망하였다는 보도가 나간 후 소비량이 70%까지 급감하였음.
  - 일본의 언론과 달리 우리나라 언론은 현상의 보도후 닭고기가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는 확인을 그때마다 해주지 않음으로 소비자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주었음.
- 과대 과장보도의 사례
  - ‘태국에서 6살난 소년이 죽은 닭고기를 먹고 죽었고, 그의 어머니도 같은 증세를 앓다가 2주전에 죽었다’는 보도(KBS 뉴스라인, 2004